

우리는 교회 활동 이외에 왜 세계관 운동을 하는가?



김승욱 (세계관운동 실행위원장)

지난 2009년 5월의 통합선포식과, 11월의 통합총회를 통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기학연동역회)가 출범했습니다. 그 후 두 단체의 중복 회원, 최근 주소, 전공, 관심사항, 회비납부 실적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휴면 회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의 참여와 열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회원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지난 25년간 동안 기독교 세계관과 이에 기초한 문화활동을 강조했지만, 사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별도의 단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속한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양육을 받고,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별도의 세계관 운동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문화를 변혁할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

는 매우 복잡하게 분화되어 이러한 문화변혁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역 교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가 분화되기 이전에는 신부나 목사가 지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흥미하는 자연주의, 과학주의, 포스트모던적 상대주의와 싸워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속한 각종 문화 현상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며,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일에는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라고 할지라도 각 분야의 전문적 견해를 세분화하여 연구·적용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각 지역교회의 전문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받은 전문 영역에서 성경적 견해를 탐구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같은 단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세계관 훈련을 받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학자, 교사, 의사, 법조인, 기업인 등 각 전문인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전문인들은 각자의 영역을 성경적 세계



관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기학연동역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2010년 세계관 운동의 역점 사업

올해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회원을 위한 세계관 교육과정과 이에 필요한 세계관 교재 개발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에 관심을 가진 모든 세계관 필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독교 세계관 관련 해외 신간을 함께 읽고 번역하고, 회원 교육의 틀을 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세계관 운동의 핵심 역량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점 사업으로 회원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회원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관 기초과정 교육은 각 지역별로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둘째, 경제, 정치, 과학, 교육, 역사, 문학, 기업, 법률 등 각 세부 분야별 세계관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세계관 기초과정을 각 지역에서 실시하기 위해 전국을 9개의 광역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두고, 그 지역본부 산하의 교회, 대학 등에 지부를 편성

하여, 각 지부별로 회원 교육, 적용 나눔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두 단체가 본부차원에서는 합해졌지만, 아직 지역 단위로는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각 지역에서 회원들이 서로 만나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 사업은 홈페이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두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합하였으며 그 동안 발표되었던 모든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제 문화의 각 영역별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육과 토론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에 흩어져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도 전문가들의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과 함께 지금까지 해 오던 일들을 더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격월로 발행하던 소식지 <온전한 지성>을 매월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으로는 활동을 신속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 미디어아카데미의 단기 및 중기 과정을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일보에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뉴스 인 바이블' 칼럼 등도 더욱 많은 전문가를 발굴하여 발전시키고, 더욱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들

을 돕기 위해서 각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지원 하에 <추모예배의 개혁주의적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단체와의 연계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도와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임 사역자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회원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한 나절이라도 가능한 날에 사무국에 오셔서 봉사원사를 해 주시거나 가능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섬겨 주시면 사역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단체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 적

극적인 회비와 후원을 기대합니다.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게는 e-cash 같은 혜택을 주어서 자료를 다운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소식지 <온전한 지성>과 학술지<신앙과 학문>을 제작하는 일에 쓰입니다. 이 회비는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회비만으로는 저희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인 회비 외에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기학연동역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영역의 소명을 이루어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소식지 자원봉사자 지원안내

자원봉사자로 헌신해 주세요

기획, 편집, 취재, 발송지원 업무 자원을 기다립니다.

소식지의 매월 발행을 위해 **소식지 편집부**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쇄, 출판 사역 및 사진 촬영 등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동영상 업데이트, 논문자료의 편집과 관리를 도와주실 분들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세계관운동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소식지 사역

- 기획 1명: 원고기획
- 편집 1명: 원고편집, 교정 업무
- 취재 9명: 각 지역의 소식을 작성하고 원고를 수집
- 사진촬영 5명: 각 주제에 맞는 사진 촬영
- 발송작업 10명: 소식지 발송 지원

홈페이지 사역

- 동영상 편집 2명
- 음성자료 편집 2명
- 문서자료 편집 5명



* 자원봉사자에게는 기학연동역회 주최의 강좌와 행사시에 참가비를 감면해 드리며 CUP 신간도서 70% 할인가매와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